

2. 마을의 역사

상토일(上吐日)과 중토일(中吐日)은 1566년(명종 21)에 신안인(新安人) 주경삼(朱景參)이 분가(分家)하여 개척하였다고 한다. 마을회관은 2010년에 신축됐으며, 읍남4리 새마을회가 소유, 관리하고 있다.

3. 가구 분포

총 10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예천 임씨(禮川林氏), 신안 주씨(新安朱氏), 김해 김씨(金海金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밀양 박씨(密陽朴氏), 남양 홍씨(南陽洪氏), 담양 전씨(潭陽田氏) 등이 주로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봉림산(鳳林山)

토일(吐日)과 울시골 사이에 있는 낮은 산(山) 고개인데, 봉(鳳)과 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이 산에 경주 최씨(慶州崔氏) 입향조(入鄕祖)[1592년]인 한우(韓佑)의 묘소가 있다.

제17절 읍내리(邑內里 : 1·2·3·4·5里)

1. 마을의 자연환경

읍내리는 울진군청과 울진읍사무소,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정부기관이 위치한 행정·교육중심지이다. 또 울진지역의 대표적 전통 장시(場市)인 ‘바지계시장’이 도심지 중앙에 위치하며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상권이 형성되어있다. 울진초등학교와 남부초등학교, 울진중학교와 울진고등학교가 위치하며, 군 청사 동편에 울진의료원과 노인요양병원이 있다. 또 인근에 도심지 공원인 연호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학습·여가 시설인 청소년수련센터와 과학체험관이 소재하고 있다. 태백산맥이 동쪽으로 뻗어 그 지맥이 읍내리를 감싸고 있으며, 서북쪽으로부터 남대천이 동쪽으로 흐르면서 이를 경계로 남쪽에는 읍내3리, 북쪽으로 읍내1·2·4·5리가 형성되어있다. 읍내리의 동쪽은 연지리, 읍남 2·3리가 동해와 연결하며,

서쪽은 고성1리(九萬洞)가, 남쪽에는 읍남1리(吐日洞)·읍남4리[오싯골]가 있다. 온양리는 동북쪽으로 바다와 접해있으며, 동북 방향 약 8km 거리에 죽변항이 있다.

2. 마을의 역사

1371년(공민왕 20)에 왜구(倭寇)의 급습(急襲)으로 고현성(古縣城)[연지리 현내동(縣內洞)]이 소실되고, 현령(縣令) 어세린(魚世麟)이 읍내리 옥숙동(玉淑洞)[현 울진초등학교 교지]으로 이읍(移邑)하고, 성보(城堡)를 축조하였다.

1395년(태조 5)에 왜구(倭寇)의 내습(來襲)으로 옥숙동(玉淑洞)의 현성(縣城)이 소진(燒盡)되었다. 이에 한성판윤(漢城判尹) 장순열(張巡烈)의 상소(上疏)로 고산성(古山城)[고성리 산성(山城)]으로 이읍하였다. 1528년(중종 23)에 전(前) 경흥부사(慶興府使) 장백손(張伯孫)의 상소로 고산성(古山城)은 도로가 험난하고 식수가 부족하다 하여 옥숙동(玉淑洞)으로 환읍(還邑)하였는데, 1556년(명종 11)에 관찰사(觀察使) 윤인서(尹仁恕)와 현령(縣令) 이언화(李彦華)가 상의하여 또다시 고산성(古山城)으로 이읍(移邑)하였다. 그러나 1593년에 임진란(任辰亂)으로 소실되었다. 1621년(광해군 13)에 읍유(邑儒) 남홍(南鴻) 등이 상소(上疏)하여 현령(縣令) 이웅남(李雄男)이 또 옥숙동(玉淑洞)으로 이읍(移邑)하였다. 1679년(숙종 5)에 현령(縣令) 최진창(崔震昌)이 옥계동(玉溪洞)[현 군청사]으로 이청(移廳)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14년에 읍내리(邑內里)로 개칭되었고, 1·2·3리로 분구(分區)되었으나, 인구의 증가로 1·2리 일부가 분구되면서 현재는 1·2·3·4·5리로 구분되었다. 읍내 1리의 마을회관은 경로당과 겸해 2012년에 개축됐으며, 읍내2리 마을회관은 2002년에 신축됐다. 읍내 3리 마을회관은 1979년에 신축되었으며, 읍내4리와 읍내5리 마을회관은 각각 2006년도와 1993년에 신축됐다.

3. 가구 분포

읍내리는 읍내3리가 1,576세대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며, 그다음으로는 읍내5리 842세대, 읍내2리 644세대, 읍내4리 481세대, 읍내1리 387세대 순이다. 총 3,93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울진 장씨(蔚珍張氏), 김해 김씨(金海金氏), 전주 이씨(全州李氏),新安 주씨(新安朱氏)가 주를 이루며, 기타 담양 전씨(潭陽田氏), 영양 남씨(英陽南氏), 울진 임씨(蔚珍林氏) 등이 살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사찰(寺刹)

사찰은 동림사(東林寺)와 봉화사(峯華寺)가 있다.

2) 옥계동(玉溪洞)

읍내리 중앙으로 흐르는 남대천 물이 구슬처럼 맑다 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란 설과 옥계서원(玉溪書院)이 있었기에 부르는 이름이라는 설이 전해오고 있다.

3) 옥계성황당(玉溪城隍堂)

매년 음력 정월 15일 자시(子時)에 엄선된 제관(祭官)이 동민의 강녕(康寧)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린다.

4) 옥숙동(玉淑洞)

현재의 울진초등학교 교지(校地) 일대인데, 옛날에는 연호정(蓮湖亭)의 맑은 호수가 옥숙동(玉淑洞) 입구까지 가득하였으므로 옥숙리(玉淑里)라 하였다고 전한다.

5) 울진향교(蔚珍鄉校)

1484년(성종 15)에 월변동(月邊洞)에 창건되었으며, 1697년(숙종 23) 고성리 성저동으로 이건하였다가, 1872년(고종 9)에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였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8칸의 대성전, 7칸의 명륜당, 5칸의 동재, 3칸의 주사, 2칸의 제기고(祭器庫), 내삼문(內三門) 등이 있다. 대성전에는 5성(五聖), 송조4현(宋朝四賢), 우리나라 18현(十八賢)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59호이다.

6) 월송대(月松臺)

울진읍의 팔수봉(八首峯)으로 정상이 평지로 되어 있고, 산 정상에서 사방으로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으므로 망향대(望鄉臺)라 일컬었다. 광복 후에 이 월송대를 월송공원(月松公園)으로 개칭하고 정상에 광복기념비(光復記念碑)와 충혼탑(忠魂塔)을 건립하였다.

7) 주진수(朱鎭洙) 기념비(記念碑)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울진초등학교 앞에 있는 애국지사 주진수를 기리는 기념비이다. 주진수의 구국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하여 백운선생기념사업회에서 1959년 3월 1일 울진초등학교 정문 왼쪽에 기념비를 세웠다. 그 후 기념행사를 할 공간이 협소하여 백운선생

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에서 울진군청과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아 2005년 8월 15일 매화만 세공원 안에 기념비를 세우고 매년 3월 1일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8) 홍시동(紅矢洞)

옛날 이 마을에 정려(旌閭)의 홍살문이 세워졌던 곳이라 하여 홍시동(紅矢洞)이라 전한다. 현재 읍내2리인 울진교(蔚珍橋) 일대 지역의 마을이다.

9) 홍시동성황당(紅矢洞城隍堂)

매년 음력 정월 15일 자시(子時)에 엄선된 제관(祭官)이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 태풍 사라호 후에 읍내2리 현 위치에 사당을 건립하였다.

제18절 정림1리(井林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으로 독고산(獨高山)이 있고, 남대천(南大川)이 마을 앞을 흐르고 있다. 서쪽은 산(山)모퉁이에 정림3리인 산두동(山頭洞)이 있으며, 남쪽은 남대천(南大川) 건너에 용저동(龍渚洞)이 있고, 북쪽은 천지봉(天池峯) 너머로 북면 사계리 지역이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비봉산이 흡사 ‘봉황이 나래를 펴고 앉아 있는 형국’으로 울진지역의 길지로 여겨진다. 고려조 사찰인 정림사지가 현존한다.

2. 마을의 역사

1600년경에 남양 방씨(南陽房氏)가 처음 마을을 개척(開拓)하여 냇가의 물을 식수(食水)로 이용하면서 마을 이름을 정계(井溪)라 하였다고 하며 또는 계림(溪林)이라 하였다는 설(說)도 있다. 그 후 절골에 고려조 사찰인 정림사(淨林寺)가 있었다 하여 정림(淨林)으로 개칭(改稱)하였고, 1914년 이후에 정자(井字)를 써서 정림(井林)이라 표기하고 있다. 현재는 영양 남씨(英陽南氏) 집성촌이다. 마을 입구 위치한 마을회관은 2003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을의 동쪽 초입에 비보(碑補)풍수를 담은 소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다.